



Over the Prejudice & Discrimination



제19회 세계에이즈의 날

‘편견과 차별의 벽을 넘어’

매년 12월 1일은 UN에서 정한 세계에이즈의 날이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세계에이즈의 날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행사가 펼쳐졌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여 일반국민들에게 에이즈예방과 더불어 감염인에 대한 인권향상 및 편견과 차별해소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여러 가지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글 편집실

최근까지 에이즈 감염인의 발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에이즈 확산을 억제하고 에이즈 예방을 위해 전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며 감염인의 인권 향상과 감염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행사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행사 취지에 맞춰 에이즈·결핵관리팀 및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주제를 ‘에이즈 감염인 인권향상 및 편견과 차별해소’로, 행사표어는 ‘편견과 차별의 벽을 넘어...’로 정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후원으로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 주관

하이 12월 1일 2시 코스모타워 상상아트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에이즈 관련 단체, 보건관련단체 및 유관기관, 공무원과 많은 감염인들이 참석하였으며 최상원 대한에이즈예방협회장, 변재신 보건복지부 차관, 알렉산 디 배시바우 주한미국대사, 전광표 구세군대한본영 사령관, 강분원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부회장 등 각계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더욱 자리를 뜻 깊게 하였다.

식전행사로는 STOP AIDS 희망의 대형벽화에 꽃달기 이벤트가 준비되어 언론의 깊은 관심 속에 많은 내빈과 참석자들이 직접 희망의 꽃을 달며 모두 한마음이 되었으며, 오프닝 영상에서는 2006년 한 해 동안의 에이즈 예방 및 감염인 편견과 차별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사업과 노력의 과정을 한편의 영상으로 상영하였다.

1부 기념행사는 홍혜길 의학전문기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에이즈 전반에 걸쳐 헌신해온 유공자 표창에 이어 내빈의 기년사와 지사, 격려사가 이어졌으며 2부의 기념 이벤트는 무대에 실치된 '터치버튼'을 주요 인사가들이 누름으로써 '편견과 차별의 막을 넘어'라는 표어의 의미를 담아 감염인과 비감염인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간다는 내용의 레이저쇼가 펼쳐졌다.

이어 현대무용단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아름다운 공연을 보여주었으며 어린이 합창단은 함께 나누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요 라는 주제로 귀엽고 감성적인 합창을 율동과 함께 노래불러 많은 박수를 받았다. 가수 안지희의 열창은 참석자 모두에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으며 인지환과 어린이합창단이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대합창으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행사장 로비에서는 제2회 에이즈예방 대학생 광고 공모전 입상작이 전시되어 많은 관심과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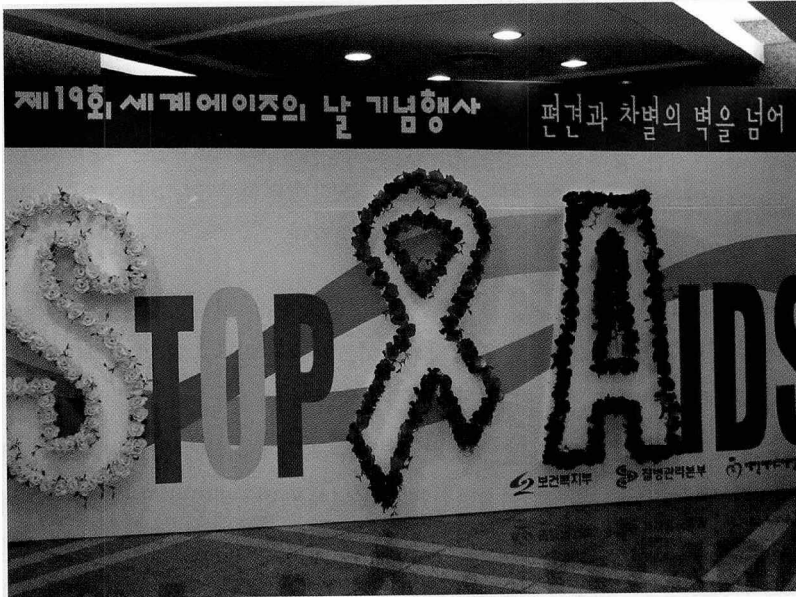
세계에이즈의 날 행사가 매년 열리는 기념식의 차원에서 벗어나 점차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어 에이즈 예방과 감염인의 인권증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날이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내용의 축제가 되어 감염인과 온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이해와 공존의 한마당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세계에이즈의 날을 앞두고 각 관련 단체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행사 전날인 11월30일에 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 한국감염인협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공동으로 병동에서 에이즈예방과 감염인 인권향상을 위한 거리캠페인은 벌인 것을 비롯,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청소년들에게 성(性)과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제1회 청소년 국제영상 페스티벌 '아우라'를 개최하여 에이즈 관련 영화를 상영하고 이벤트를 가졌다. 구세군레드리본센터는 청계천에서 진전가요, 에이즈 예방 퀴즈, 콘돔배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거리캠페인을 가졌으며, 대한적십자사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하이서울건강엑스포에서 에이즈예방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고 12월 1일에는 감염인과 함께 하는 콘서트를 지원하였다.

그 외 각 시·도 및 보건소와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별 소속 지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에이즈 관련 홍보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에이즈에 대한 예방과 감염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전환에 주력하였다.

세계에이즈의 날 행사가 매년 열리는 기념식의 차원에서 벗어나 점차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어 에이즈예방과 감염인의 인권증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날이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내용의 축제가 되어 감염인과 온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이해와 공존의 한마당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희망의 내령별화 꽃단기



최강원 회장 기념사



변재진 보건복지부 차관 치사



버시버우 주한미군대사 격려사



사회 통제감 리처드요지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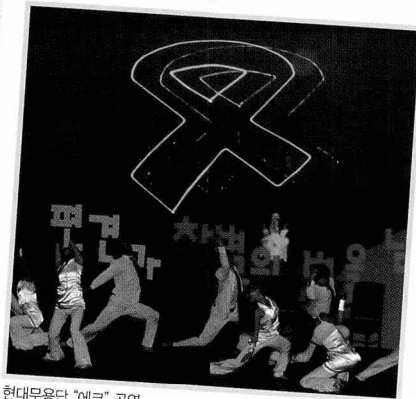


한미영 공연

제 19회 세계에이즈의 날 기념행사 이모저모



어린이합창단 "예쁜 아이들" 공연



현대무용단 "에코" 공연



유공자 표창